

##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박진임  
(평택대)

### 1. 서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문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 'culture'는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왔다. 이러한 복잡한 문화의 개념으로 인하여 영국의 문화 평론가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문화'는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어휘라고 말한 바 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곧 문명(civilization)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고 그 때의 문화 또는 문명은 당연하게도 서구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문명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문화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대타, 또는 부정태(negativity)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데 문화의 부정태는 다름 아닌 미개, 원시, 또는 야만이였다. 서구가 동양과 아프리카등을 점령해 나가던 제국주의의 역사는 문화에 의한 야만의 타파

라는 서구인들의 신념에 기초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그러한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문화는 이전의 문명 개념과 동일시될 때처럼 특정 지역의 특징인들이 전유한 것이거나 자연에 반하여 인간이 이룩한 어떤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문화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새로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화(globalization) 시대에 접어들어 문화의 교류와 전파는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통신과 운송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세계가 빠르게 하나의 마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계는 점점 더 무의미한 것으로 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다국적기업(Multi National Corporation)이나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Miyoshi, 248) 라이치 (Robert Reich)의 지적처럼 “특정 국적을 가진 상품이나 기술 또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국경 안에 남는 것은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 즉 국민들 뿐이다.”(Reich, 3) ‘made in America’는 더 이상 ‘made in America’ 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 대립은 약화되고 국가간의 공조와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문화교류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 없는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문화는 어떤 형태로 교류될 것인가? 국가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각국의 모국어로 씌어진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일 것이다. 번역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치환하는 것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개별 작품에 사용된 언어가 내포하는 문화적, 이념적 특수성까지 번역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없다.

본고는 문학 작품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 번역 대상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번역된 텍스트가 수용될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실례를 들어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그 범위를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본고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영미문학의 한국어 번역에도 물론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 번역자들은 이전의 번역자들의 공과에 힘입어 보다 나은 번역을 시도해야 할 것

이다. 인간 문화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듯이, 번역 또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없이는 도로에 그칠 뿐이다. 논자는 2002년도 한국문학 번역원 주최 한국문학 번역지원사업중 영어권 번역 사업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번역 작품들을 심사한 바 있다. 본고는 심사 대상이 된 번역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오역의 예들에서 문화 번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학 번역에서 드러나는 오역의 예들이 대개는 문학 작품 번역이 문화의 번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문학 작품의 단순 번역에 불과한 경우에 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본고는 보일 것이다.

## 2.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들

구체적인 번역 사례를 들기에 앞서 우선 좋은 번역은 좋은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정이 기초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롭(Waldrop)이라는 학자는 “번역은 몸에서 혼을 짜내서 다른 몸으로 꼬여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라고 표현했다. 번역이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다.(유영란, 11) 번역은 원전의 죽음을 넘어 새로운 탄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전을 두고도 번역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번역은 원전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원전의 토양에서 훌륭한 번역의 탄생을 보기는 실로 힘들다 할 수 있다.

편의상 번역 대상 텍스트를 일차 텍스트라 부르고 번역된 텍스트를 이차 텍스트라 부르자. 일차 텍스트가 그 구성이 산만하다거나 문체가 난잡하다거나 불분명한 언어 사용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 텍스트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조차 감동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그것이 번역되었을 때에라?1) 따라서 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문학 분야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좋은 문학번역가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일차 텍스트를 골라내는 것은 감식안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감식안은 훈련 없이 그저 생기는

1) 논자는 예외적인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한다. 논자의 견해로는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의 영역본인 전경자 역, 『Shadow of Arms』의 경우 번역의 문체가 원작의 문체보다 나은 경우이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은 일차 텍스트라는 말의 정의는 단순히 문학성이 뛰어난 완성도 높은 텍스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번역의 문제가 개입 될 때에는 더 한층 까다로운 것이 된다. 번역되었을 때 좋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원본 텍스트가 인류 공통의 문제 (universality)를 다루고 있거나 또는 한국적 특수성 (specificity)을 지니고 있거나 해야 한다. 둘 다를 아우를 수 있다면, 즉 인류에게 보편적인 주제인 동시에 한국적 특수성까지 곁들인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브루스 풀턴(Bruce Fulton)과 주찬 풀턴( Ju-Chan Fulton) 공역의 『Words of Farewell』은 한국의 세 여성 작가, 오정희 강석경, 김지원의 단편들을 모아 번역한 것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도서 시장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한국 여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 것이다. 이 책은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던 1980년대에 출간되어 예외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의 성공은 여성 문제라는 보편성과 한국 여성만의 정서와 상황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의 겸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둘째는 번역자가 일, 이차 텍스트의 언어를 모두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 좋은 번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풍부한 어휘력과 정확한 통사구조의 이해는 좋은 번역의 두 번째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 든 두 요소가 구비되었을 때,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일, 이차 텍스트가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구체적인 번역 사례들을 들어가며 위에 든 세 가지 점의 중요성을 증명해 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번역지원사업 심사에는 총 11편의 번역 작품이 심사 대상으로 접수되었다. 영어 번역본과 한글 텍스트 원본이 동시에 제출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원본의 제목과 저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원본이 정확히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부된 일부 원본 텍스트만을 통하여서도 그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를 가늠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2) 풀턴 부부는 논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미국 출판업계의 출판 대리인(agent)이 이와 같은 선집의 번역을 제안해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문학과 문화계, 또는 최소한 영어권 문학 문화계의 전반적인 지향점과 흐름에 일치하는 문학 작품의 번역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첩경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 「The Colours of Life」의 경우

「The Colours of Life」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작품이 이와 같이 원저자나 원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속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병원에서 시체 해부 작업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그가 다루는 시체를 매개로 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 명상과 독백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앞서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번역 대상 텍스트의 중요한 요건들이라 언급했는데 이 텍스트는 둘 중 어떤 것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텍스트 속의 화자가 시체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에서 “잘 들 사셨수?” 라고 일차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데 이를 “Have you lived well?” 이라고 직역했는데 영어로도 한글로도 그로테스크한 표현이라는 느낌이다. “인생이란 어차피 한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인데” 라는 구절을 “Since a man is born once and dies once” 라고 번역한 것도 어색하다. “같은 일을 계속하다보니 무덤덤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they get benumbed to their repeating work”으로 번역한 것도 영어의 표현으로는 아주 어색하며 원문이 뜻하는 바가 전달되지 않는다. “they become less and less sensitive to their work as they come to repeat the same work over and over again” 등으로 번역해 줄 때에만 이해가 될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직역을 했다. 그 구절은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 속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므로, 역자의 “I have not forgotten it completely” 보다는 “the notion was still lingering”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충격”이라는 표현을 “shock of the past”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충격”을 뜻하므로 “shock I felt in the past”라고 해 줄 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밖에도 “내가 아직 그 죽은 자의 얼굴에 깃든다는 참된 평화가 무엇이지를 모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그 특별한 평화가 죽은 자의 얼굴에 떠도는 것을 본다면 나 역시 당장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역자는 “... However, If I saw the uncommon peace dwelling on the dead's faces, I think I could recognize it immediately” 라고 평범하게 문구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그러나 여기에 내포된 바는 ‘그 평화가 현저하여 결코 눈치 채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해 주어야 진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I guess it would be too apparent to

escape even my dull eyes”로 번역한다면 원래의 의미에 가까울 것이다. 종합하자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역자는 영어 표현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 2. 「What is Darkening」의 경우

이것은 나희덕 시집을 번역한 경우이다. ‘복숭아 나무곁으로’의 경우, “Without knowing why, I did not want to come near the peach tree” 라는 번역구절에서 ‘want to’는 너무 강한 표현이다. ‘왠지 모르게 가고 싶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without knowing why, I did not feel like to come to the peach tree” 가 더 적절하다. “thinking the tree may have shade which no one can sit down”에서는 ‘which’가 아닌 ‘in which’가 문법적으로 정확하다. 시 ‘상현달’의 경우, “신도 이렇게 들키는 때가 있으니” 라는 구절이 있다. 상현달을 여신에 비유하고 그 상현달이 쉬는 모습을 시적 화자가 몰래 지켜보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역자는 “How the God is detected often like this”라고 번역했는데 어색한 표현이다. 그보다는 “She would not know that I saw her in secret”이 더 나은 표현이 되겠다. 또한 “이글거리는 석탄으로 입을 씻은 이사야 처럼”이라는 구절을 “like Isaiah who washed his lips with a glaring charcoal fire” 라고 번역했다. 영어의 ‘wash’는 우리말 ‘씻다’에 해당하지만 웹스터 영어 사전의 제1번 정의를 따르자면 액체로 씻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이 경우 “like Isaiah who cleansed whose mouth with a glaring charcoal”이 조금 더 적절하겠 다. 다음으로 ‘group of wild geese’는 문학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羊이 큰 것을 美라 하지만 저는 새가 너무 많은 것을 슬 픔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자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말놀이(pun)은 참으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각주의 형식등을 빌어 이와 같은 인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왜 재미가 있는 것인 지 설명해 줄 수 밖에는 다른 전달 방법이 없다.<sup>4)</sup> 역자는 “Much amount is

3) 웹스터 사전의 정의는 “To clean by means of water or other liquid, as by dipping, tumbling, or scrubbing, often with a soap, a detergent, etc”이다.

4) 1970~80 년대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 선배를 요즘 학생들이 하듯이 ‘오빠’라고

called beauty, but I will call a group of too many birds sadness”로 번역했다. “Some say a large lamb is beautiful, I will say s flock of wild geese make one sad”로 번역하고 각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한 “한 쪽 모서리가 부서진 밥상을 끌며”를 “pulling the table broken its corner”로 번역했는데 이는 “pulling the table with chips on its corner”가 더 정확하다.

다른 시 “sounds”에서는 “하늘이 세 평, 꽃밭도 세 평”이라는 표현이 있다. 역자는 이를 “The sky is just three pyong and flower field also three pyong”으로 번역했다. 여기서의 ‘평’은 넓이의 단위이므로 얼마만한 넓이인지를 각주로 밝혀 주어 그다지 넓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the sky is just three pyong wide and so is the flower garden”이 더 적절한 번역이 되겠다. “지붕이 옆의 지붕에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표현은 “sound of roof mumbling to roof” 보다는 “sound of roof mumbling to another roof”가 더 적절하다. 마지막 행의 “고요도 세평”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오역을 낳았다. 고요는 “silence”로 번역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세평인 그곳은 아주 고요한데 그 고요도 아마 평수로는 세평이리라는 뜻일 것이다. 이를 역자는 “goyodo three pyong”으로 오역했다. ‘고요’라는 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일차 텍스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또 하나의 시 “rainig like an Anodyne” 또한 몇부분에서 어색함을 보이고 있다. “without knowing my uprooting” 이 그 첫 번째 경우이다. “나 스스로가

부르지 않고 ‘형’이라 불렀다.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공동체 중심의 한국 사회의 특성상, 가족 관계에 한정될 호칭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 영어권 독자들이 선행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주머니’ ‘아저씨’ 등의 용어가 빈도 높게 등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위에 든 ‘형’ 호칭은 단순히 ‘brother’외에는 근접한 대체어가 없고 ‘brother’는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다. 우선은 이름을 호명하는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성적 차이(gender difference)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무성적인(gender-neutral) 존재로, 혹은 초성적인(trans-gender)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 다음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대학사회에 합류하고자 하는 여대생들의 의도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비평의 용어를 빌자면 정신분열적(schizophrenic) 현상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 용어는 당대의 남성 중심 문화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거나 분열적인 방식으로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 대학생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 뿌리 뽑혔다는 것을 모른 채”의 번역인데, 그 보다는 “not knowing (that) I was already uprooted” 가 낫겠다. ”without knowing that it is a funeral flower for myself“ 또한 “not knowing they would be the funeral flowers for my own death”가 더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

이 번역은 일차 텍스트의 선정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희덕의 시는 이미지도 명료하고 삶에 대한 성찰도 보여주는 좋은 시로 보인다. 따라서 번역에도 적합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번역의 경우 영어의 구사력에 한계가 보이는 것이 아쉽다.

### 3. 『 Land Vol.2』의 경우

이것은 박경리의 『토지 제 2권』을 번역한 것이다. 박경리의 작품은 번역이 쉽지 않다. 방언의 사용, 토속 문화에 대한 묘사등의 이유로 그야말로 위에 든 문화 이해 없이는 번역할 수 없는 작품이다. 이 번역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첫째는 한국 문화의 코드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제대로 변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원작에 대화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를 적절한 연결고리 없이 원문대로만 번역함으로써 장면의 변화나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급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었다. 그 결과 영문 소설의 형식을 참조한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선 일차 텍스트나 그 텍스트가 기반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역이 드러난 경우들을 살펴보자. 먼저 작중 인물 두만네가 혼자말처럼 남편에게 하는 말을 번역한 부분이 있다. 남편이 일만 너무 많이 해서 입맛을 잃었음을 안타까와 하는 부분인데, 두만네는 경상도 하동근방의 사람들이 지아비를 지칭하는 방식대로 남편을 ‘이넝’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넝은 ‘you’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를 ‘he’로 번역하는 오류를 보였다. 즉 “things could be much easier for him if...”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things could be much easier for you if...”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다음 이한복의 아버지가 칠성, 귀녀등과 모의하여 최치수를 살해한 것이 밝혀지자 이한복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아내는 이를 부끄러워하여 자살한다. 이한복은 결국 고아처럼 떠돌다 고향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한복을 따뜻이 맞

아주는 마을 아낙은 “나는 양반집 자손이고. 나는 어머님을 닮았inke...”하면서 한복을 격려한다. 이 말은 한복의 가문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한복의 아버지는 살인을 함으로써 양반의 반열에서 이탈되어있고 한복의 어머니는 양반의 법도를 지켜 자살을 택하였다는 것, 그리고 한복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에 속한다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역자가 이를 “You are son of a gentleman and you take after your mother”로 번역한 것은 이한복의 아버지가 gentleman이라는 의미로밖에 읽힐 수 없어 원작과는 맞지 않는다. 원작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You are originally from a noble family. Your mother was a very virtuous lady and I am sure you are exactly like your mother” 정도로 번역해주는 것이 적절하겠다.

더 한층 문화번역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는 번역의 오류는 긍정과 부정을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영어권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가 간과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이한복이 수십리 길을 걸어 고향에 돌아온 것을 맞아들이며 마을 아낙이 말을 건넨다. “아무도 (달구지 하나) 안 태워 주더냐?” 하고 묻는 것이다. “한복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를 뒤따르는 표현이다. 즉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다는 대답이다. 역자는 ““Didn’t any of them offer you a ride?” He nodded.” 로 번역했다. 이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은 “No one did”라는 언술의 등가물이다. 그 경우 영미문화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가로 저어야 한다. 한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이 부정문으로 물어 올 경우 상대방이 언술한 바를 맞다고 긍정하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영미문화권에서는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다는 대답 자체가 갖는 부정성의 표현으로 고개를 젓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역은 “he nodded”가 아니라 “he shook his head”가 옳은 번역이다.

또 하나, 문장의 직역만으로는 뜻하는 바가 전달되지 못하고 그 문장이 내포하는 바를 부연 설명해 주어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될 때가 많은데 이는 주로 문화에 대한 주석의 형태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밥 묵을라카몬 하늘 치다 봐는데” 의 번역을 보자. “Even then we look up the heaven when we eat our meals”라는 번역만으로는 뜻하는 바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들의 노동이 밥한 그릇의 가치가 있는지 두려워하는 농민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보충이 필요하다. “wondering if our labour

deserves a bowl of rice”등이 추가될 때 비로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하나, 먼길을 걸어난 한복의 얼굴을 ‘탈바가지가 된 얼굴’로 표현했는데 이를 역자는 “damaged face”로 번역했다. 이 경우에도 ‘dirty face’가 더 적절할 것이다.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씻지 못해 보기에 나쁜 얼굴이라는 뜻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경리의 작품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더하여 한국의경상도라는 특정 지역의 특정 언어 사용이라는 또 하나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절한 문화 번역이 절실한 번역 대상 텍스트의 한 예를 보여준다.

#### 4. 「Our Grandfather」의 경우

이 번역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현길언의 단편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역자의 영어 구사력의 한계가 보이는 경우이다. 가정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다”를 번역한 부분이다. “all family members were waiting for him to pass away”라고 번역했다. 문자대 문자의 직역으로서 그 뜻하는 바는 “모두가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또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 경우 우리말 ‘임종을 기다리다’는 임종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임종의 순간에 지켜보는 것을 자식된 도리로 보는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와 같이 번역하면 이러한 정황이 번역되지 않는다. “all family members were watching over him in the fear that he might pass away soon”으로 번역해 주어야만 할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를 제대로 번역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마당에 서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의 경우, “I was standing in the yard when I heard my name”이라고 번역했는데 standing의 경우 지나친 직역으로서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I heard my name 도 자연스럽지 못한데, 이 경우 “I was in the yard when I heard my name called”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외삼촌이 우리를 보고 말했다”의 경우 또한, “my uncle saw us and said to us”라고 번역하는 것도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번역 미숙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my uncle told us”로 충분하다. “이장의 죽음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이상

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의 경우에도 역자는 “after seeing the dead body of the village chief, the villagers began to behave strangely”로 번역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 진 것은 시체를 본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의 죽음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것임으로 “after the death of the village chief, the villagers changed” 정도로 번역해 주어야 할 것이다.

#### 5. 『The Silhouette of Mother and Grandmother etc.』의 경우

이는 신경림의 시 ‘농무’의 여러편을 번역한 경우이다. 시의 경우 번역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 할 것인데 역자는 뛰어난 영어 구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역자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와 구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쪽이 더 능숙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양이’라는 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부분을 번역한 것을 통하여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역자는 애물단지를 ‘the object of affection’으로 번역했다. 국어 사전에는 ‘애물’에 대한 두 가지 정의가 있다. 하나는 ‘몹시 속을 태우는 사람이나 물건’ 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어로는 愛物로서 ‘사랑하여 아끼는 물건’이다. 5) 이 경우에는 동사 ‘되어 버렸다’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귀찮은 대상’으로 변했다는 뜻으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고 역자의 번역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하여 아끼는 대상’이라면 ‘되어버렸다’는 동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애물단지’라는 말이 현대어에서는 그다지 잘 쓰이지 않는 말이기 는 하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object of annoyance’로 번역했을 것이다.

#### 6. 『The Broker's Office』의 경우

이는 이태준의 단편 전당포를 번역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앞에 든 박경리 텍스트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잘못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화투패나 밤낮 때면 너의 어머니 살아 온다덴?”에 나오는 너의 어머니는 명백히 죽은 아내의 지칭이지 실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다. 이를 역자

5) 이기문 감수, 『동아 메이트 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930.

는 ‘your late wife’가 아니라 ‘your late mother’로 번역하는 오류를 보였다. 또, “네깃 놈 술 더러 안 먹는다”를 “Bastards like you don't know how to drink”도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다. “I do not feel like to have a drink a person like you buys for me”로 해 주어야 한다. “무용이란 건 문명국일수록 벗구 한다네 그러”의 경우 또한 조악한 직역에 해당한다. “With dancing, the more civilized the country, the more clothes they take off”로 번역함으로써 거의 의사불통의 수준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 “네가 안방 건넌방이 몇 칸 이요나 알았지”의 경우도 이보다는 덜하지만 부정확한 번역의 예가 된다. 역자는 “the size of inner rooms and side rooms”로 번역했다. 그 보다는 “the only thing you know about is how many rooms the houses you sell have”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젊은 여성 무용수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작중 인물 안초시가 “지금 총각놈들 모두 등신인가 봐”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역자는 이를 “men these days must be fools”로 번역했는데 여기서의 등신이라는 말은 성적인 암시를 포함해야 하므로 ‘fools’ 보다는 ‘eunuchs’로 번역해 주는 것이 적절할 터이다.

### 3. 결론

이상에서 6편의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의 경우를 놓고 번역상의 오류와 부정확한 번역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외국어를 모르면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괴테의 말과 같이 비교의 기준으로 타인과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국제화와 정보화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김효중, 29)

문학 번역에 있어서 문학 텍스트의 단순 번역은 진정한 타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문학 번역은 그 문학을 탄생시킨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 문화 자체의 번역으로 연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언어학, 지역학, 번역학, 문화인류학, 비교문학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발달은 이러한 문화 번역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의 발달에 힘입

어 문화 번역을 아우르는 문학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적인 문학 교류와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짐과 동시에 세계 문학계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온 한국 문학 작품의 보급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번역을 통한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화되고 전지구인이 평등히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게 되는 미래의 추구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기문 감수. 1995. 『동아 메이트 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 유영난. 1995.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 김효중. 2002. 「문학작품 번역과 세계관」 한국 비교문학회 간, 『비교문학』 제28집.
- 이태준. 1995. 『이태준 문학전집 2: 돌다리』 서울: 깊은샘.
- 나희덕. 1991. 『뿌리에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Hwang, Suk-Young. 1994. 『The Shadow of Arms』. Trans. by Chun Kyung-Ja.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 Kang, Sok-Kyong et al. 1989. 『Words of Farewell: Stories by Korean Women Writers』 Seattle: Seal Press.
- Miyoshi, Masao. 1998. 「“Globalization,” Culture, and the University」. Frederick Jameson and Masao Miyoshi ed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Durham and London: Duke UP.
- Reich, Robert. 1991.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Vintage.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Third College Edition. New York: Prentice Hall. 1986.

[Abstract]

**Translation of Literature and Translation of Culture:  
A Case Study on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Park, JinIm  
(Pyongtaek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ulture in which certain national literature was produced when one translates literature.

I assume that in order to make a good translated work, the translator must selected good original texts to begin with and that the translator should train himself or herself to have good sensibility toward literature. However, to have a good sense of more than two languages and literary sensibility are not sufficient. One of the assets a good translator must have is full knowledge of the culture of the society in which the original texts are produced.

Based on my review of the works of translation submitted to the Korean Bureau of Translation in pursuit of the grant the bureau promises to the best qualified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I draw out some patterns of common errors in applicants' translation. I conclude that most of the errors occur when a translator is not fully aware of the cultural context in which the original text was produced unless the translator's command of two languages, the language of the original text and the language into which the original text is translated, which are Korean and English in this case, is limited.

Thus, I conclude that a good literary translation means a good translation of its culture as well. Letter to letter translation out of the cultural context, as seen in the case of 'yes' and 'no' in the translation of Land by Park Kyung-Ni, results in an absurd and non-sensical mistranslation.

A good translator, therefore, would mean one who can actually bridge the cultural gaps and interstices between two heterogeneous cultures, not to mention a good bilingual speaker. Good translators should be borderlanders and “both and” people in terms of culture.

K C I

▶ Key Words: translator, literary translation, cultural context, original text, applicants' translation, translated work